이라크에서 전사한 미군의 숫자가 2천978명에 달해 '9·11 희생자수'를 넘어섰다. 이라크 주둔 미 해병대 병사들이 지난 14일 야간기도 도중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올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라크 미군 사망자, '9·11' 희생자 추월

26일까지 2,978명…여군 전사자도 역대 최대

이라크에서 전사한 미군의 숫자(군무원 포함)가 지난 2001년 9월11일 알카에다의 테러공격으로 숨진 '9·11 희생자수'를 넘어섰다고 AP통신이 26일 보도했다.

AP통신은 이날 자체 집계결과를 인용, 지난 2001년 9·11 사태 때 숨진 희생자수는 2천973명이고, 지난 2003년 3월 미군이 이라크를 침공한 뒤 45개월여가 지난 26일까지의 미군 전사자수는 2천978명으로 이라크전 전사자수가 5명 더 많다고 전했다.

미군 당국은 크리스마스인 25일 미군 3명이 이라크에서 숨진 데 이어 26일엔 바그다드 인근에서 도로변 폭발사고로 3명이 전사했고 또 다른 1명은 차량전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워싱턴타임스(WT)도 이날 지난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사한 미 여군의 숫자가 70명을 넘어서 한국전, 베트남전, 걸프전쟁 등을 제치고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타임스는 여군 전사자수가 이처럼 증가한 데 대해 ▲여군이 전체 자원병력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점 ▲과거엔 여군들이 주로 의료팀에 배속됐지만 최근엔 군용기를 몰거나 전시물자 지원 및 순찰병력을 수송하는 트럭을 운전하며, 장비 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타임스는 여군들이 최초로 전선에서 중요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걸프전쟁보다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가장 주요한 이유로 이라크와 아프간에서는 저항세력들이 최전방 부대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살폭탄테러나 급조폭발장치(IED)를 이용해 미군을 공격, 모든 도로와 마을이 전쟁터가 되고 있어 지원업무를 담당한 여군들이 지상전투에 투입된 남자군인들 만큼 위험에 처해있다고 타임스는 분석했다.

최근 미 여군 전사자 보고서를 낸 '군복무준비센터'의 엘렌느 도넬리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숨진 여군은 아프간전쟁 8명, 이라크 전쟁 62명이라면서 이들은 대부분 IED나 매복공격에 희생됐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

사람 몸 속 흔한 '기생충'이 男은 바보로 女는 섹시하게

호주 연구팀 발표

사람들의 몸속에서 흔히 발견되는 기생충이 남자는 더욱 바보스럽게 만들고 여자는 더욱 섹시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호주 과학자들이 주장했다.

27일 호주 언론들에 따르면 시드니 테크놀로지 대학 감염증 연구팀은 '톡소플라스마 곤디'라는 기생충은 호주인 800만 명을 비롯해 전 세계 인구의 40% 정도가 감염돼 있는 아주 흔한 기생충 가운데 하나라며 그 같이 밝혔다.

이 기생충은 대개 날고기나 덜 익힌 고기를 먹었을 때 고기의 낭포 속에 들어 있다 사람에게 감염되거나 고양이의 배설물에 섞여 나온 기생충 알을 사람들이 모르고 흡수했을 때 감염된다.

연구팀의 니키 보울터 박사는 "남자가 이 기생충에 감염되면 지능지수(IQ)가 낮아지고 학교 성적이 떨어지며, 집중력도 저하되고 법을 어기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과 남에게 의존하는 경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여자들이 이 기생충에 감염되면 성격이 보다 외향적이 되고, 사근사근해지며, 성관계가 문란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오클랜드=연합뉴스

위기감도…기쁨의 흥분도… "한국은 불감증"

호주 연구팀 발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올해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한국의 수출액 3천억달러 돌파라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났지만 한국인들은 위기감도, 흥분도 느끼지 못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의 서울 주재 쉬바오캉(徐寶康) 특파원은 이날 '해외 특파원이 본 세계'라는 특집기사의 한국 부문에서 이 두 사건에 대해 상식대로라면 한국인들은 우려와 기쁨을 나타내야 했지만 예상과 달리 한국인들은 위기감도, 기쁨의 흥분도 느끼지 못했다면서 한국 언론은 이러한 현상을 '불감증(遲鈍症)'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많은 한국인들이 북한 핵실험에 무관심한 것은 위기에 둔감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수년 동안 대북 평화, 화해, 협력 정책을 편 결과로 여기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제2의 전쟁이 일어날리 없다는 생각이 많은 국민들 사이에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최근 몇년간 한국 경제가 고속성장에서 저성장기로 접어들었으며, 부동산 가격은 사상 최고로 치솟았고 빈부 격차는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비 등으로 심지어 늦은 밤에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고 신문은 말했다. /연합뉴스

北 화물선 중 해역서 침몰…17명 실종

북한 수산부 소속 3천t급 화물선 룡월산호가 26일 오후 중국 다롄 뤼순(旅順)항 부근 라오톄산(老鐵山) 부근 해역에서 침몰해 선원 25명 가운데 17명이 실종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교통부 해양수색구조센터는 이날 오후 3시8분께 북한 화물선 1척이 다롄 부근 해상에서 침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랴오닝성 해양수색구조센터가 선박과 헬기를 동원, 구조에 나섰으나 선원 8명만 구조하고 나머지 선원들은 행방을 찾지 못했다.

사고 해역에는 강풍과 함께 높이 4~5m의 파도까지 일어 구조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랴오닝성 해양수색구조센터는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측에도 룡월산호의 침몰 사실을 통보했다.

룡월산호는 침몰 당시 광석 2천900t을 싣고 중국으로 입항하던 중이었다. /선양=연합뉴스

"김정일, 10년이상 버티기 힘들 것"

통일연구원, 탈북자 설문

탈북자들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임계점'을 넘었으며 10년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27일 통일연구원이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교육받은 탈북자 31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에 따르면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에 대해 응답자의 71%가 김정일 정권이 앞으로 10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또 북한의 위기 수준에 대해서는 이념(3.47), 엘리트(2.77), 경제(3.24), 통제(2.72), 대외(3.39) 등 항목 평균이 3.12로 나타나 임계점(3.0)을 넘어섰다고 평했다.

평점 1은 체제가 '매우 안정적', 2는 '대체로 안정적', 3은 '체제 위기 임계점', 4는 '체제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상태'를 뜻한다.

특히 김일성-김정일 세습과 관련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3)과 '매우 부정적'(4)이라는 평점 사이인 3.41로 나타났으며 김정일에 이은 3대 세습은 3.56으로 더욱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북한의 현 정권이 유지되는 이유는 '외부 정보 차단'(27.9%), '사회통제 강화'(26%), '사상교육 강화'(22.4%), '선군정치 강화'(15.9%) 순으로 응답했다. /연합뉴스

후세인 사형 확정

법원 "30일 이내 집행"

이라크 종파간 분쟁 격화

이라크 최고 항소법원은 26일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1심 법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형 최종 확정이 예견됐던 일이긴 하지만 이라크 내에는 아직도 후세인을 지지하는 수니파 세력이 상당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지세력의 대규모 집단적 저항이 예상된다.

이라크 고등법원 라에드 주히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후세인에 대한 사형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으며 내일(27일)부터 30일 이내 집행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날 사형 확정 판결에 대해 상고절차는 없으며 이번 판결이 최종심이라고 덧붙였다.

사형이 집행되려면 절차상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과 부통령 2명의 재가를 받아야하는데 탈라바니 대통령은 후세인 사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탈라바니 대통령은 부통령이 그를 대신해 사형 집행 명령에 서명하도록 합법적으로 허가했기 때문에 후세인은 항소법원의 최종 판결대로 교수형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히 대변인은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없으며 사형집행 명령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이라크의 사법절차에 따라 30일 이내에 후세인의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바이=연합뉴스

제럴드 포드 전(前) 미국 대통령이 향년 93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지난 1974년 11월 22일 방한한 포드 미 대통령이 신촌에서 하차해 환영인파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드 前 美대통령 타계

제38대(1974~1977년) 미국 대통령을 지낸 제럴드 포드 전(前) 대통령이 향년 93세를 일기로 타계했다고 부인 베티 포드 여사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포드 여사의 발표문에는 포드 전 대통령이 어디서 마지막 순간을 맞았는지, 사인이 무엇이었는지 명시되지 않았다. 포드 전 대통령은 올 1월 폐렴을 앓았으며 8월에는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의 한 병원에서 혈관성형술을 포함, 두 차례 심장 치료를 받았다.

생존 대통령으로는 최고령이었던 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쪽으로 약 209km 떨어진 캘리포니아주의 사막지대 랜초미라지의 자택에서 지내왔다.

포드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그의 지명을 받아 대통령직을 승계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이 됐다.

그는 취임 이듬해인 1975년 4월 베트남전 종전을 맞아 "미국이 베트남전 이전에 가졌던 자신감을 회복할 수는 있지만 전쟁을 다시 일으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미국 역사상 또 하나의 큰 상처를 봉합해야 했다.

단 895일 동안 백악관을 지켜야 했던 포드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66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들 중 12건에 대해서는 의회가 다수 투표로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도 했다. /로스앤젤레스AP=연합뉴스